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12월 7일(금)

(음력 10월 23일)

Пятница

7 декабря 2018 г.

№ 47(11681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1993년 12월 10일,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행사.

▲ 25년전에, 1993년 12월 10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사할린한국교육원이 개원했다. 개원식에는 당시 주지사인 옌게니 크라스노야로브(왼쪽),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 이.파르후트지노브(오른쪽 두번째), 주블라디보스토크 박명준 총영사, 한국교육부 대표 등이 참가했다.

(관련 기사 2면)

(본사 사진첩에서,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보건부, 러시아 <품질과 안전>상 받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실용과학컨퍼런스 <의학과 품질 2018> 부문에서 경연 결과를 발표했다.

사할린주 보건부는 <의료활동의 품질과 안전>부문에서 2위로 우수상을 받았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러시아 보건 분야 감독청과 러시아 보건부는 37개의 평가 기준으로 지역들을 평가했다.

사할린주에는 최근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45%, 폐·기관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49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영아 사망률 감소이다. 2018년 결산에 따르면 사할린주는 러시아 평균 지표(5.2) 보다 2배 이상 적은 2.4의 지표로 기록됐다.

사할린주 보건부 알렉세이 박 장관에 따르면 보건 분야에서 이런 성과는 체계적인 업무 덕분에 가능했다며 "심각한 상태의 중증환자를 주내 각 지방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송하는 문제 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역혈관센터, 주 중앙전문 진료소 및 결핵과 출산 등에서 전문화된 서비스의 활동들을 검토하고 각 목적에 따라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다"고 박 장관은 덧붙였다.

섬지역 보건 분야의 발전의 공로에는 인사정책 개선이 실현된 데도 있다. 인사정책 도입 시작부터 주내에는 600여 명의 의사가 채용되었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위해 전국 선도병원들에서 전문의를 영입하고 있다. 사할린 의료진들의 준비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도 우수한 러시아 및 외국 의료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최신 의료 장비도 확보되었고 최근 2년간 사할린 보건기관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20억 루블리의 예산도 책정되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회적 주도 포럼에서 표창장 수여받아

지난 11월 30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스톨리차>비즈니스센터에서 사할린주 사회원·주정부 주최로 사회적 주도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오후 실시된 사회적 프로젝트14개를 소개하고 시상되었다. 그중 하나가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가 사할린국립대와 함께 추진하는 <세대의 연결, 전통의 이어짐>이란 기획이었다.

이날 특별부스에는 주한인협회에서 준비한 한민족 전통 문화, 사할린 한인 관련 자료가 소개돼 참석자들 가운데 인기가 많았다. 또한 사할린주 한인협회 부회장인 임 엘위라 사할린국립대 한국어 교수의 지도로 한국 전통공예품 만들기 활동교실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블라지미르 이콘니코브 사회원 위원장의 주재로 이뤄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패넬토론에는 사할린주 정부 이성철 행정실장 대행, 사할린주두마 안드레이 하포츠킨 의장, <액티브 교육>사단법인 단체 일로나 월로쉬나 사장 등이 참가했다.

<SNC에서 추진>, <파이드라이징> 특강도 인기가 많았고 비영리 단체 활동가들은 다양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본사 기자))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안톤 체호브의 이름을 갖다

지난 4일(화) 러시아 연방 사회원에서 <러시아의 위대한 이름>콩쿠르의 전문위원회 총회가 소집되어 전국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러시아 국민들은 전국 42개 공항이 갖게 될 위대한 명칭을 선정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은 사할린 주민들의 투표로 3만2633표를 얻어 1위에 오른 안톤 체호브 명칭이 공항의 이름이 된다. 투표에는 섬지역 주민 약 8만여 명이 참가했다. 2위에는 겐나지 네웰스코이 (1위에서 2000표 못 미침), 3위는 이반 크루첸스테른(약 1만6000여 표 득표)이 차지했다.

남부 사할린 및 쿠릴열도 해방자 10명 유즈노사할린스크 명예시민 칭호 수여

지난 5일(수) 사할린주 정부에서 조국 영웅의 날 기념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가한 사회주의 노동 영웅 공로자, 사할린주 명예 주민, 대조국전쟁 참전자, 여러 분야의 명예 근로자 등에게 사할린주 정부 웨라 셰르비나 수상이 축하했다.

이날 차세대 애국심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남부 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에 참가한 참전자 10명(웨체슬라브 가브릴로브, 와실리 안드레예브, 제카브리나 푸쉬카료와, 니콜라이 트로실로, 블라지미르 시즈카리, 와실리 코미셰브, 블라지미르 레프슈, 예브도키야 모호네와, 게오르기 크라스노고로브, 안나 보그다노와)에게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명예시민 칭호를 수여했다고 전했다.

민주평통, 사할린에서 삼일 만세운동 100주년 행사 개최

사할린을 다녀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블라디보스톡협의회 이경중 회장과 박정훈 간사는 지난 4일(화) 사할린한인문화센터 회의실에서 민주평통 사할린 고문인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 김춘자 우리말 방송 국장, 배 워토리아 새고려신문 사장, 오진하 주한인회 운영위원, 임용군 사업가와 만나 내년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사할린에서도 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제17기 민주평통 자문 위원인 장용운 <베들레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봄 행사의 형태와 날짜를 정했다.

사할린 대표단 홋카이도 방문

지난 30일(금) 일본 삿포로에서 사할린주와 홋카이도 간 우호 및 경제협력에 대한 협정 체결 20주년 기념 제13회 홋카이도와 사할린주 주민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사할린 대표단(총 20명)은 집행기관, 지방자치체, 문화교육기관, 사회단체와 스포츠협회 관계자들로 구성되었다. 주요 발제는 홋카이도와 러시아 극동 간 교류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사토시 오쿠보, 사할린주 스포츠관광청소년정책부의 예코리 움노브 차관이 하고 주유즈노사할린스크일본총영사관 히라노 류이찌 총영사는 '일본과 사할린 간 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할린과 홋카이도 양 지역 간 교류 확대에 대한 제안 내용은 공동 성명서(컴뮤니케)에 담겨있다.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구독을 계속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92루블리 84코페이크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한국교육원, 25년간 사할린과 캄차트카에서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 지킴이

사할린한국교육원은 25년 전, 1993년 12월 10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개원되었다. 정말 뜻깊은 사변이었다. 한국교육원 개원은 동포들만이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사할린 정부에서도 매우 뜻깊게 여겼다. 개원식에는 그 당시 사할린주지사 옐게니 크라스노야로브, 부지사 웨.구레워츠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가 직접 참여해 축하하고 기원했다.

한국 측에서는 주블라디보스토크 박명준 총영사, 한국교육부 재외국민교육이문화과장, 재외국민교육과 이우식 장학사, 모스크바대사관 이종숙 교육관 기타 손님들이 참석했다고 1993년 12월 17일호 새고려신문에서 보도되었다.

25년 전에 한국교육부장관이 교육원 개원식 때 보낸 축하에는 '한국교육원은 모국과 사할린의 교



1993년 12월 10일,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행사.

육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며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양국 관계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축하대로 25년이 지나면서 100% 이루어졌다.

그동안 사할린한국교육원은 한국어와 한민족문화 유지·보급을 위해 꾸준히 애써왔다.

사할린한국교육원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1학

교에 위치해 있었고, 2007년에는 사할린한인문화센터 건물로 이전해 여러 활동을 확대해오고 있다.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에 따르면 우선적이고 중요한 업무는 한국어 교육이라고 한다. 올해 9월에 교육원 강좌에 247명이 신청, 등록했다. 25년간 교육원 수강에 적어도 5000여 명 이상이 수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이 강조했다. 현재

는 사할린국립대 임 엘비라 교수와 코르네예와 인나 교수, 장기간 한국어 교사로 활약한 권경자 선생, 전영희 선생, 동양김나지아의 젊은 한국어 교사 정혜진 씨가 교육원 한국어 강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외 평생교육차원에서 원어민 강사 설원화 선생은 한국어, 문화와 한국 노래를 위주로 하는 주부

교실은 허은설현 선생이 담당하고 있다.

김주환 원장은 도구와 설비 때문에 요리 교실이 제한이 있어서 동시에 8명 밖에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요리교실은 항상 희망자가 많다고 한다. 1년에 4그룹(총 32)이 요리교실 수업을 하고 있다.

또한 사할린한국교육원은 사할린 학생들을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거나 모국체험연수차 한국으로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보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유학은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동포 학생들이 사할린국립대에서 한국어를 많이 전공하는 해에는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으로 몇 명씩 선정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한국어 전공 동포 학생 수가 적어져 1년에 1명 정도만 뽑고 있다.

(7면에 계속)

이 모 저 모

<승리>종합기념박물관, 조국 역사에 관한 시험 실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포베다(승리)>기념관에서 러시아 연방 헌법 25주년 기념 조국 역사에 대한 국제시험이 진행되었다.

대규모 교육행사에 323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40분 안에 40개 문항의 답을 맞춰야 했다. 시험문제는 각 시대별 조국의 역사와 헌법에 관한 질문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행사는 사할린주에서 이미 4번째 진행되고 있다.

조국 역사시험은 2015년부터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 산하 청소년의회가 개최하는 <매일 러시아를 자랑한다>기획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행사의 주요 목적은 조국의 역사연구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주민들의 역사적 지식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에서만 아니라 세계 45개국에서 진행되었다.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провел для сахалинцев тест по истории Отечест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обеда" состоялось провед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еста по истории Отечества, приуроченного к 25-летию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масштаб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ак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323 человека.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ложили ответить на 40 вопросов за 40 минут. Задания содержали вопросы по всем периодам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и Конституции.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уже в четвертый раз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ест по истории Отечества проводится с 2015 год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Каждый день горжусь Россией!" молодежного парламента п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е РФ. Его основная цель — оценка уровня исторической грамот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и привлечение внимания к изучению отечественной истории. В ак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не только россияне, она прошла в 45 странах мира.

사할린주 도서관이 <책 읽는 엄마 - 책 읽는 나라>창작경연을 개최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이 가족 독서 대중화와 독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책 읽는 엄마 - 책 읽는 나라>창작경연에 참가 희망자들을 초대한다. 이 행사는

<온 가족이 도서관으로>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2019년에 가족 독서의 지원으로 진행할 일련의 창작 행사 중 하나다. 경연 참가에 어머니들과 4세 이상의 자녀들을 초대한다.

주요 경연 수행 과제로는 애독자들에게 문학의 본문(시, 동화, 단편소설)을 표현력 있게 읽어주어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작품 속 인물들의 정서와 감정을 전달하는 참가자들의 능력을 평가한다.

경연대회 조직위원회는 1월 5일 14시 도서관 2층에 위치한 <우니웨르살카>청년센터에서 성인과 어린이들을 기다린다. 행사 입장은 무료다.

Творческий конкурс "Читающая мама — читающая страна" проводит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библиотек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иглашает всех желающих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творческом конкурсе "Читающая мама — читающая страна",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ся с целью продвижения и популяризации семейного чтения.

Он состоится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ей семьёй в библиотеку" и откроет цикл твор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в 2019 году в поддержку семейного чтения. К участию в конкурсе приглашаются мамы и их дети в возрасте от четырёх лет и старше.

В ходе выполнения основного конкурсного задания книголюбам предстоит выразительно прочитать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текст (стихотворение, сказку, рассказ). Жюри оценит артистизм конкурсантов, их способность передавать настроение и эмоции героев произведения.

Взрослых и детей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курса ждут 5 января в 14 часов в молодёжном центре "Универсалка", который располагается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библиотеки. Вход на мероприятие свободный.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추위 할아버지 우체국 업무 시작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12월 1일부터 추위 할아버지의 우체국이 업무를 시작했다. 사할린의 어린이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원을 담은 편지를 <테레모크>여가센터에 있는 우편함에 넣을 수 있다. 다음 모든 우편물들은 소포로 웰리키 우스추크(추위 할아버지가 사는 지역)로 배송된다.

이 모든 기획은 전통적으로 시문화휴식공원 직원들이 실행하고 있다. 전에는 아동들의 편지를 시공원에 있는 작은 통나무 오두막에서 수집했는데 올해는 콤무니스즈체스키 프로스펙트에 위치한 추위 할아버지 집에 우편함을 설치했다. 주최 측은 어린이들에게 손수 엽서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했다.

월요일과 화요일 제외한 평일에 <테레모크>에서는 추위 할아버지에게 보낼 새해 카드(엽서) 만들기

활동교실이 진행되고 있다. 방문객들은 교실에 있는 여러 재료들로 엽서를 만들 수 있다.

사할린의 어린이들은 추위 할아버지에게 선물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추위 할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친절한 편지쓰기를 배우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단체들은 새해 명절의 역사와 전통을 소개할 예정이다. 추위 할아버지의 집에는 2개의 우편함이 설치돼 있다. 첫 우편함은 대문에 걸려 있고 둘째 우편함은 건물 내에 설치했다. 활동교실에 참가 신청 전화는 8(4242)25-38-28로 할 수 있다. 우편물은 12월 23일까지 접수한다.

이후 소원의 우편물은 추위 할아버지 본사인 웰리키 우스추크로 보낸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работала Почта Деда Мороз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 декабря начала работать Почта Деда Мороза. Маленькие островитяне могут положить письма со своими самыми сокровенными пожеланиями в ящики центра досуга «Теремок». Потом все послания отправятся в посылках в Великий Устюг.

Этот проект традиционно ведут сотрудники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Раньше письма малышей собирали в небольшой деревянной избушке, расположенно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учреждения.

В этом же году ящики разместили в резиденции Деда Мороза на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м проспекте, а детям предложили своими руками сделать открытки.

Каждый день, кроме понедельника и вторника, в «Теремке» проходят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новогодней открытки Деду Морозу. Посетители могут сделать ее из любого материала, который есть в наличии.

Маленьких сахалинцев учат и вежливому письму — не сразу просить подарок у Деда Мороза, а сначала поинтересоваться его здоровьем, рассказать о себе. Помимо того, культорганизаторы знакомят малышей с историей праздника и его традициями.

В резиденции установлено два ящика для писем. Первый висит на воротах при входе, второй — в самом здании. Записаться на мастер-классы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у — 8 (4242) 25-33-82. Послания будут собирать до 23 декабря включительно. После все пожелания отправятся по почте в «головной офис» резиденции — Великий Устюг.

<고르니 워스두흐>스키장 이용료 작년과 같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고르니 워스두흐>스포츠관 광단지의 요금정책은 새 시즌에도 전과 같이 유지된다.

(8면에 계속)

사할린영주귀국자들의 소식

안산시, 사할린 고향마을 주민들에게
김장김치 전달



사진설명: 안산시 노인장애인과 사할린동포복지팀이 최근 후원받은 김장김치 1.5t을 사할린동포 고향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사진=안산시청

안산시 노인장애인과 사할린동포복지팀은 최근 사할린 영주 귀국 동포 고향마을 주민 300명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김치는 1.5t분량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10개 단체로부터 후원 받았다.

160인 분의 김치를 후원한 한두건설㈜은 사할린동포 고향마을 주민을 위해 2년간 4회에 걸쳐 실버카 107대, 휠체어 4대 등을 지원하는 등, 고향마을 주민들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후원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양윤희 고향마을노인회 회장은 “올해 고향마을 주민들을 위해 여러 기관에서 김치를 후원 해주셔서 감사하다” 고 말했다.

(중부일보, 2018.12.04)

고려대 인천교우회,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특식나눔 봉사활동



고려대학교 인천교우회는 11월 24일 인천 연수동 소재 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100분에게 갈비탕을 제공하고, 내복을 전달했다.

고려대학교 인천교우회(회장 심 관식 사학73·동화이앤씨 대표이사)는 주말인 11월 24일 인천 연수동 소재 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100분에게 갈비탕의 특식제공과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내복을 선물로 전달했다.

고대인천교우회는 1년에 두 번씩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사할린동포복지관은 과거 일본 정부가 징용으로 사할린에 묶여있는 우리 징용 노동자를 국내외 이주시킨 이후로 한·일관계의 악화 등을 이유로 예산지원을 중단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족대학을 주장하는 고려대 졸업생 모임인 인천교우회에서 봉사활동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다.

고대 인천교우회는 이미 3년 전 논현동 소재 사할린 이주 동포를 대상으로 어버이 큰잔치를 진행한 바 있다.

복지관의 안내로 사할린 동포의 국내 생활과 과거 역사를 설명을 듣는 귀한 시간도 있어서 함께한 청소년들의 귀한 교육의 시간을 갖게된 의미도 있다. 이날 행사는 맛있는 점심으로 갈비탕을 제공하고 고대동문들의 공연과 연수여고 댄스동아리의 멋진 공연도 있었다. 흥에 겨운 할머니 할아버지의 노래 자랑도 있었는데 한 할머니의 아리랑은 참석한 고대가족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봉사에는 고려대 출신 박남춘 인천시장도 함께 했다.

(한국일보, 2018.12.26)

사할린, 12월 12일 전국 국민 맞이의 날 준비

오는 12일, 러시아 헌법의 날에 전국 국가기관들이 국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사할린 주민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국가기관들을 방문해 정오12시부터 20시까지 걱정하는 문제들을 상담할 수 있다. 방문 시 접수처에서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는 사전등록을 하거나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영접할 예정이다. 사전등록은 12월 5일부터 하고 있으며 공식 사이트나 전화300-911, 300-669, 300-804, 300-845로 할 수 있다.

주 교육부는 레닌거리 156, 사무실 35, 사전등록은 전화 46-59-95.

사할린주 재판감독기관은 정오12시부터 16시까지 사전 등록을 한 시민들을 맞이하고, 16시부터 20시까지 등록 없이 방문한 시민들을 맞이한다. 사전 등록은 전화 72-25-02 로.

사할린 세관은 12월 12일, 이후 일주일 간 시민들을 맞이하여 세관업무 관련 질문에 답변할 계획이다. 문의 전화 491-277, 491-206.

연금재단은 본사와 모든 지부에서 시민들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보는 사이트와 전화 49-55-05.

사할린주 검찰청과 유즈노사할린시 검찰청은 12월 12일 체호브거리 28번지에서 시민들을 기다린다.

러시아 대통령령으로 2013년 12월 12일부터 해마다 전국 국민 접대날은 12월 12일에 진행하고 있다.



사할린동포회, 성금 전달

양산시사할린동포회(대표 박장녀)는 지난달 26일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를 방문해 성금 30만원을 기탁했다.

(양산시민신문)

사할린 동포 할머니들의 납치극, 연극 '고향 마을'

한국 와이티엔 뉴스(YTN) 방송을 통해 사할린 한인의 이야기를 담은 지공연협동조합 연극 '고향마을'이 소개되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으로 고통을 받은 사할린 동포를 기억하시나요?’

그중에는 고국으로 영구 귀국한 이들도 있는데요.

꿈에 그리던 고향에 왔지만,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한바탕 인질극이 벌어집니다.

할머니 세 명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납치한 겁니다.

백발의 노인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제 강점기 사할린으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과거 자신들을 착취한 작업반장과 국회의원이 같은 인물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연극 '고향 마을'은 서울 대학로 소극장 무대에 올려져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이 연극을 무대에 올린 건 40대 이상의 중견 연극인들이 모여 결성한 공연예술인 협동조합이다. 이들은 훌륭한 작품 목록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공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연극 공연은 뜻있는 관객들에게 십시일반 제작비를 모금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제작이 성사되었다고 했다.

맹봉학 배우·지공연 협동조합 이사장은 "내년이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더라고요.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역사적인 것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잊혀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 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소견을 밝혔다.

연극 제목처럼 실제 경기도 안산에는 영구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모여 사는 '고향 마을'이 있다. 연극은 잊힌 이들을 기억하라고, 또 우리 모두가 안고 살아가는 '분노'와 '용서'라는 감정의 속살을 마주하라고 말하고 있다.

신성우 연극 '고향 마을' 작가는 "역사적 소재에서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지만 한 발 더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인간 보편의 증오와 용서에 대한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연극 '고향 마을'은 사할린 동포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과거이자, 현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출처: YTN)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25주년 기념
사할린주 태권도·씨름 대회

일시: 2018년 12월 9일(일요일), 10:00

장소: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주최: 사할린한국교육원

주관: 오스트로브 무술센터

후원: 사할린주한인협회, <메가팔라스>호텔

Фестиваль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ТХЭКВОНДО·ССИРЫМ)

В честь 25-летия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Дата проведения: 9 декабря 2018г., 10:00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Организаторы: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Центр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гостиница «Мегапалас»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Грань бесконечности»

С 22 по 24 ноября в Доме дружбы Алматы проше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с участием более 50 делегатов из пяти стран СНГ.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актуальные для современной молодежи, делегаты смогли поделиться опытом, наладить новые связи.



В Форуме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пять молодеж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з стран СНГ: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молодежный клуб «SmArt YouZ», Кыргы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SHINSEDAE» Республика Узбекистан;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Москвы, молодежный совет Всеукраи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или ООО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ОЮЛ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и Фонда содействия зарубежным корейцам.

2018 год знаменателен 20-летием Молодеж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периода сво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организация выполняла задачи по консолидации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ее гармоничного развития в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м казахстанском обществе. Форум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стран СНГ стал уникаль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площадкой, на которой участники смогли получить знания о том, как создаются и реализуются проекты, ка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актуальны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а также встретиться с ветеранами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которые внесли весом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Казахстана. Делегаты форума извлекли для себя множество полезн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получили знания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новых идей и конкретных механизмов их реализации.

В первый день форума после официальной части для гостей Южной столицы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экскурсия по городу. Ребята из соседних стран посетили Корейский дом – центральный офис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и исторические места Алматы. Экскурсия сопровождалась интересными комментариями. К примеру, Парк 28-ти гвардейцев-панфиловцев, будучи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популярных мест посещения, оставил у гостей неизгладимое впечатление. А на пути к горе Коктобе, в рамках сити-тура, участникам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гостиница «Казахстан» – символ Южной столицы, освещена теплым светом уходящего

вечернего солнца. В завершение экскурсии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фото-охота, где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делились на команды и соревновались кто быстрее и оригинальнее сможет запечатлеть шесть объектов города на свой телефон.

Во второй день прошли специальные тренинги от молодых успеш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которые поделились с участниками форума своим опытом. Открыл марафон Олег Цой, президент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Allur» с тренингом «Стратегия изучения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от мотивации до реализации». Он рассказал свою историю успеха и поделился опытом в изучении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Все ребята были невероятно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его выступлением и долго обсуждали получен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римеривая ее на себя. Следующей выступала известная блогерша, маркетолог Александра Пак с темой: «Self-бренд, почему это нужно?». Она рассказала о том, как следует продвигать тот или иной бренд и основ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реализации дан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Участники нашли эту тему одной из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х и активно задавали вопросы спикеру. С темой «Развити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выступила Марина Ким, руководитель танцевального ансамбля «Намсон». Она поделилась с присутствующими историей создания собственного творчес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рассказала о том, что ее вдохновляло и вдохновляет по сей день. А после плотного обеда участники провели работу в практических группах «Твор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и «Digital Marketing». Модератором творче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выступил Никита Смелков, который организовал работу в формате Q&A. Он также рассказал о том, как стал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м и о трудностях,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ется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выбравший творчество, как основ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своей жизни. Направление работы «Digital Marketing» было наполнено мотивацией, основанной на собственном опыте модератора Диниила Огая. Он рассказал о том, как не бояться сделать первый шаг и воплотить свои идеи в реальность, а также подробно раскрыл тему «Digital Marketing».

Перепополненные позитивными эмоциями, идеями и мотивацией, вечером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сетили высокогорный каток Медео, дабы выплеснуть накопившуюся энергию и просто хорошо отдохнуть. Ребята смогли отлично пообщаться в неформа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е. Чувствовалась атмосфера единства и сплоченности, подогреваемая дружелюбием и веселыми шутками.

На третий день тренинг Евгения Ким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coach тренера, с самого утра зарядил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положительными эмоциями и невероятной верой в самих себя. Темой его выступления стал личностный рост и развитие внутреннего потенциала. К слову, это не первый тренинг, который Евгений проводит на встречах с Молодежным движением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и,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побывавшие на них участники, с невероятным рвением желают посетить его выступления еще раз. За эти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делегаты форума успели очень сильно подружиться и привязались друг к другу, а тимбилдинг,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в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день, еще больше сплотил ребят, способствовал формированию командного духа и развития лидерских качеств. Тимбилдинг был разделен на несколько частей. Согласно первому заданию ребята должны были презентовать себя. Каждая команда подготовила выступление, содержащее название, девиз, преимущества и собственное описание членов команды. Атмосфера постепенно накалялась и уже чувствовалась дружелюбная, но достаточно серьезная конкуренция.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торжественный ужин проходил в окружении теперь уже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люд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олодеж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бменивались словам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и памятными подарками, после чего каждый стол исполнил свою песню в караоке. Все участники фотографировались друг с другом, танцевали, а кто-то уже начинал прощаться. Наравне с позитивными эмоциями и громким смехом ребят, чувствовалась невероятная грусть от осознания завершения форума.

Пусть нас разделяют километры, а пути сумели сойтись лишь на несколько коротких дней, который каждый пытался растянуть всеми возможными способами, наши судьбы сплетены той мягкой нитью, которая сколько бы ни путалась и не рвалась, непременно соединит всех нас снова вместе.

В завершении встречи ребята поделились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т прошедшего мероприятия.

Источник: <https://koreans.kz>

Убили за внешность

Русскоязычная община обратилась с открытым письмом к премьеру Южной Кореи

Трагедия с гибелью в Южной Корее 14-летнего сына россиянки, который стал жертвой одноклассников, всколыхнула русскоязычную диаспору страны. Сегодня Координационный совет организаций росси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СОРС) опубликовал открытое письм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у страны Ли Нак Ёну, призвав власти встать на защиту детей, а также всерьез заняться существующей в корейских школах проблемой буллинга, когда одного ученика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травят и унижают его одноклассники.

Напомним, что резонансный инцидент произошел 13 ноября в одной из школ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города Инчхон. Четверо школьников заманили своего 14-летнего одноклассника на крышу 15-этажного дома, где почти полтора часа избивали его. В итоге мальчик либо спрыгнул от отчаяния, либо его сбросили с крыши, и он погиб. Полиция арестовала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им предъявят обвинения в убийстве. Инцидент получил большую огласку и возмутил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которая требует самого жесткого наказания для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преступников. Одновременно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погибший был единственным сыном россиянки и корейца. Однак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на жила только вдвоем с сыном. По словам некоторых знавших погибшего, над юношей в школе постоянно издевались из-за его "некорейской" внешности. Все это не оставило равнодушными находящихся в Корее россиян и граждан СНГ, у многих из которых дети также учатся в корейских школах. На сайт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явилась петиция с требованием призвать к ответу всех виновных в трагедии. Воззвание получил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откликов.

29 ноября русскоязычная община Южной Кореи опубликовала открытое письм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у страны в связи с происшествием. Письмо размещено и подписано на сайте КСОРС.

В письме говорится, что к глав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обращаются люди, приехавшие из России, Казах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а, Белорусси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СНГ.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что "никто в русскоязычном сообществе не остался безучастным к этой трагедии" и все "восприняли ее как личную".

Учителя Южной Кореи зачастую негативно настроены по отношению к ребенку из семьи, где один из родителей – иностранец и иностранных семей и обратить самое прист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н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ую в корейских школах проблему буллинга. Подчеркнуто, что "в Корее травле подвергаются также дети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и иностранных семей просто потому, что они чем-либо отличаются от коренных жителей Кореи", и в итоге "многие матери-иностранки боятся отправлять детей в корейские школы".

Отмечена и проблема с подготовкой корейских педагогов, когда местные учителя зачастую "негативно настроены по отношению к ребенку" из семьи, где один из родителей – выходец из другой страны. При этом инцидент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нередко замалчивают, опасаясь нанести ущерб имиджу школы.

КСОРС от имени русскоязычной общины Южной Кореи озвучил семь пунктов мер, которые "убедительно просит" принять в местных школах. Среди предложений – проведение уроков по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толерантности с освещением трагедии в Инчхоне, организация бесед с родителями на эту же тему, включение в курс подготовку педагог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лекций и семинаров, обеспечение всех школ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психологами, открыт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х пунктов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о проблемам 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ряд других мер.

В заключении говорится, что находящиеся в Корее русскоязычные люди любят эту страну, здесь живут и работают, но не хотят видеть своих детей страдающими и оплакивать их.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бюджетно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ихооке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г. Хабаровск)
Факульт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АССОЦИ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крыт набор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Педагог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орейская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 **Сроки обучения:** с 02.01. 2019. по 05. 05. 2019.
- **Форма обучения:** очно-заочна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дистан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 **Кол-во часов:** 252 час.
-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5 мес./ 3 сессии

По окончании обучения выдается диплом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образца о присвоении ново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Образование –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к высшему 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среднему. Диплом даёт право осуществля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педагог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систем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 Требования к слушателям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языком –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по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е – портфолио
- Условие - прохождение аттестации

По окончании обучения выдается диплом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образца о присвоении ново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Образование –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к высшему 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среднему. Диплом даёт право осуществля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педагог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систем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е-mail: Ase65@bk.ru
https://vk.com/ase_sr
8962 154 88 65

Приём заявлений и документов осуществляет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Ассоци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8 декабря 2018 года - с 10:00 до 14:00
По адресу: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Сахалинская, 219, 2-й этаж, 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ВИФЛЕЕМ» (район Владимировки, остановка «Спутник»)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ам:
+ 7 962 154 8865 – Наталья Геннадьевна
+ 7 924 481 4056 – Юрий Андреевич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Корейская борьба Ссирым внесена в список ЮНЕСКО

Традиционная корейская борьба «ссырым» была внесена в Список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человечества ЮНЕСКО. Как указано на сайте организации, 26 ноября в Порт-Луи (Республика Маврикий) в ходе 13-го заседания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охране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единогласно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включении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ы «ссырым» в Репрезентативный список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человечества на основе совместной заявки от РК и КНДР. Рассмотрение кандидатур для включения в список должно было начаться только с 28 ноября. Но комитет решил вопрос по борьбе «ссырым» в день открытия заседания, взяв в учёт беспрецедентность события. В частности, речь идёт о согласии РК и КНДР объединить свои заявки.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в Пханмунчжоме Юг предложил Северу подать совместную заявку в ЮНЕСКО, а 15-17 ноября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ЮНЕСКО Одри Азуле посещала Пхеньян, уговаривая Север пойти на этот шаг.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тветила положительно. До этого организация принимала отдельные заявки РК и КНДР по одинаковым объектам. Это народные песни в стиле «Ариран» и традиционные квашенные овощи «кимчхи».

Суд РК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по делу 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м труде в Японии

Верховный суд РК обязал японскую компанию Mitsubishi Heavy Industries Group выплатить компенсации десяти гражданам РК, работавшим на её заводах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альной оккупации Кореи. Так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вынесено 29 ноября по итогам апелляционного рассмотрения иска десяти южнокорейцев, требовавших компенсацию от вышеуказанной компании. Суд постановил, что частные обращения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оправданы, поскольку они не подпадают под базовый договор об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Японией и Кореей от 1965 года,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прежние исторические споры двух стран считались разрешёнными. Суд также не принял утверждение Mitsubishi Heavy Industries Group о том, что частные претензии пострадавших утратили актуальность. В итоге суд постановил, что японская компания должна выплатить каждому из истцов от 70 до 133 тыс. долларов.

Треть работающих пожилых корейцев, занятые в низкооплачиваемых сферах

Трое из десяти работающих корейцев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65 лет заняты в сфере уборки или охраны.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сотрудника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го банка развития Ян Со Ёна. Отмечается, что такая ситуация связана с недостаточностью мер по переквалификации людей этого возраста, а также узконаправленным спросом на такие кадры, что вынуждает граждан 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устраиваться на места с низкой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ю.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выхода в отставку среди таких работников составляет 72,9 года среди мужчин и 73,1 года среди женщин. В странах ОЭСР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ет 65,3 года среди мужчин и 63,6 года среди женщин. Кроме того, в РК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ухода с основной работы составляет 49 лет. В Европе показатель превышает 60 лет. В этой связи среди южнокорейцев старше 65 лет, рано ушедших с предыдущей работы и занимающихся низкооплачиваемым трудом, уровень бедности составляет 45,7%. Это самая высокая отметка в ОЭСР.

В РК растёт доля школьников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апрель этого года в РК количество школьников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выросло на 11,7%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122.212 человек. Это 2,2%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учеников школ всех ступеней.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служб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южно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стремительно становитс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таких учеников за последние шесть лет выросло в 2,6 раза. На их долю приходится 3,4% учеников школ первой ступени.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после 2012 года численность школьников в РК сокращалась более чем на 180 тыс. человек ежегодно. Напротив показатель относительно учеников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увеличивался более чем на 10 тыс. человек. Доля последних выросла с 0,7 до 2,2%. Их основная масса сосредоточена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 23,8%, в Сеуле – 13,3%. Далее следуют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Чолла-Намдо, Чхунчхон-Намдо и Кёнсан-Пукто. Учитывая все эти данные, указывается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изменения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с учётом таких перемен.

(RKI)

Первый за 10 лет поезд отправился из Южной Кореи в Северную

30 ноября специалисты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чали процедуру изучения состояния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КНДР. В ходе этой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й акции в течение 18 дней эксперты двух стран вместе на поезде проедут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2600 км, посетив почти всю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После этого станет ясно, какие работы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сти для модернизации полотна.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состоится церемония соединения железных дорог Юга и Севера.

30 ноября в 6:40 утра с главного Сеульского вокзала отправился необычный поезд, на вагонах которого значился совсем еще недавно совершенно немислимый маршрут "Сеул - Синийчжу". Учитывая, что пункт назначения - город на границе КНДР и Китая,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состав проследует через всю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плоть до последней станции на границе с КНР. Поэтому понятно, почему отправление этого состава прибыло "благословлят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чиновников и журналистов Южной Коре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официально стартовала процедура изучения железных дорог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о которой была закреплена в "Пхеньян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подписанной 19 сентября этого года в столице КНДР лидерами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ом и Ким Чен Ыном.

Состав затем проследовал до пограничн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анции Торасан, где прошла уже формальная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 которой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министр объ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Чо Мён Гю и министр земельных ресурсов и транспорта РК Ким Хён Ми. После небольшой речи состав отправился дальше в сторону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ДМЗ), зайдя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После эт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окомотив вернулся обратно, а шесть вагонов с членам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повел уже локомотив северян. При этом к южанам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коллеги-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и и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Если говорить про технические подробности этой акции, то со стороны Юга делегация состоит из 28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изучением состояния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КНДР. Примерно столько же буде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 трассам КНДР пройдут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шесть вагонов из Южной Кореи, среди которых цистерна с 55 тысячами литров дизельного топлива, необходимого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сперебойного движения состава, вагон-генератор, вагон с сидячими местами на 72 места, спальный купейный вагон на 28 мест, где будут жить южнокорейцы, вагон-ресторан, где также возможно проведение и совещаний, и

грузовой вагон с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прочими вещами, необходимыми для исследования.

Схема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КНДР, если говорить очень грубо, напоминает огромную букву "Н", где вертикальные линии - это главные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артерии страны: "Кёнысон" или западная, идущая от ДМЗ до Синийчжу, и "Тонхэсон" или восточная, идущая вдоль всего восточного побережья КНДР. Между ними - горизонтальная соединительная ветка ("Пхёлласон").

Специалисты Юга и Севера изучат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основные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трассы, включая 400 км "западной" и 800 км "восточной". В связи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возвращаться обратн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они проедут по КНДР 2600 км.

Если говорить в деталях, то сегодня началось движение по "западной части", точный маршрут которой по КНДР является следующим: станция Пханмун (приграничная) - Кэсон - Пхеньян - Синийчжу. Всего примерно 400 км. Это займет всего шесть дней - с 30 ноября по 5 декабря.

Затем состав вернется из Синийчжу в Пхеньян и поедет уже с запада на восток КНДР (линия "Пхёлла"), вплоть до станции Ковон, выйдя уже на "восточную" ветку. С 8 декабря стартует изучение этой части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Сначала специалисты исследуют южный отрезок восточной ветки, пройдя через город Вонсан, станцию Анбён до станции "горы Кымган", немного не дойдя до границы с Южной Кореей, а потом развернутся и пойдут вдоль побережья обратно - на север, проследуя снова до Вонсана, Ковона и далее через город Хамхын, станцию Кильчжу, город Рачжин и выйдя вновь на границу на станцию Туманган.

Отметим, что в этот раз состав пойдет вплоть до границы с Россией, проехав и по участку полотна, который был восстановлен РФ в рамках действующего сейчас совместного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Хасан-Раджин".

Станция Туманган станет последней точкой, после чего южане уже поедут обратно - вплоть до Ковона, а затем через Пхеньян, Кэсон и станцию Пханмун вернутся на родину. Изучение "восточной ветки" продлится десять дней - с 8 по 17 декабр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бща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акции по изучению дорог КНДР - 18 дней при протяженности 2600 км.

По итогам поездки будут получены данные,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сделать вывод, какие именно работы необходимо сделать для модернизации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КНДР и во сколько это обойдется в перспективе, когда дело дойдет до реаль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артерий Юга и Севера и их использования для перевозки грузов через Россию и Китай до Европы. Эксперты расходятся в оценках, но в целом доминирует точка зрения, чт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сети Севера потребует как минимум несколько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Но про это говорить уже будут позже, когда договорятся об отмен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й, которые пока блокируют подоб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Даже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сегодняшнего состава Сеул провел немалую работу, убеждая США согласиться "временно" отменить санкции конкретно для этого поезда и 55 тысяч литров дизельного топлива состава, так как все это формально наруша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е запреты.

Напомним, что США уже показали "зубы", когда три месяца назад не пропустили этот же состав.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оезд для изучения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КНДР должен был пройти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еще в августе, но возглавляемое США командование войск ООН в Корее, контролирующее южнокорейскую часть ДМЗ, тогда запретило проход состава, придравшись к незначительной формальности. Теперь же все удалось урегулировать заранее, по сути поставив весь процесс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д контроль Вашингтона.

В любом случае сегодняшнее событие имеет большое не только практическое, но и истор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После десяти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возобновилось сообщение (пусть и символическое) между железными дорогами Юга и Севера. Одноко вплоть до 2008 года движение осуществлялось лишь между приграничными станциями. Теперь же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южнокорейцы проедут по всем железным дорогам КНДР.

Следует учитывать, что на этот вид транспорта в КНДР завязаны основные перевозки, включая военные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южнокорейцы через 18 дней получат сведения,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им хорошо представлять, сколько и как быстро КНДР сможет перебросить войска в случае войны. Готовность Пхеньяна раскрыть под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Южной Корее - знак большого доверия и признак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ближения. Параллельно Юг и Север вчера официально завершили процесс разминирования ДМЗ и уничтожения11 блок-постов на границе, договорившись полностью ликвидировать укрепления с обеих сторон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Ожидается, что уже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Юг и Север смогут провести еще одну историческую церемонию, официально соединив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30 ноября 2018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4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тройку самых посещаемых туристами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на островах отмечен серьезный рост потока внутренних и въездных туристов - на 59 процентов. Ожидается, что по итогам этого года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посетивших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достигнет 280 тысяч человек.

К такому выводу пришли эксперт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удиторско-консалтинговой компании «Ernst&Young», которые проводили специаль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езультаты были озвучены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и сахалинск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В ходе изучения специалисты опирались на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ов иностранных респондентов из стран Европы и Азии, а также на интервью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бизнеса.

- В прошлом году число людей, посетивших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достигло 5,4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что является историческим максимумом,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илиала Компании Ernst&Young. - Лидеры нашего рейтинга - Приморский и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я, а такж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егодня является точкой притяжения. Российские туристы из европейской части России зачастую не знают, чего ожидать от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в план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о растут их осведомленность о комплексе «Горный воздух».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играет роль ключевого драйвера развития въездного туризм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весь 2017 год поток гостей на курорт составил 86 тысяч человек. Для сравнения, всего за три месяца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 68 тысяч.

Для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ют меры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ддержки. К примеру, юридические лица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земельный участок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роекта по созданию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без проведения торгов.

Примером может служить проект ООО «Лиги Дизайн», который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остиницы с кафе и баней онсэн в поселке Южно-Курильск. Участок площадью 1,5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рилегает к существующему спортив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му комплексу. Гостиница рассчитана на 26 номеров, предполагающих двухместное и одноместное размещение. Общий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составит почти 2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40 миллионов - соб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 инвестора.

Кроме того, пр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инвестор получает и другие преференции. Это возмещение затрат на уплату процентных и лизинговых платежей,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ли реконструкцию объектов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риобретение в собственность н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на капитальные вложения.

Таки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два проекта,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ибридного отеля со спортивным залом и бальнеолог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бщая стоимость объектов - 2,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 Вместе с тем, само по себе обеспечение туристов местам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не может гарантировать увеличение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отока в регион. Мы считаем необходимым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 на другие важ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 общественное питание, прокат оборудования, организацию досуга,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региона Сергей Буренков.

Среди перспекти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развития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лава ведомства назвал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е,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е и бальнеологическое.

- Сегодня мы совместно с бизнесом изучаем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и предложения, которые нужно реализовать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туристической сферы. Благодаря работ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появились первые существенные результаты, - сказ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ера Щербина. - Из те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мы часто обсуждаем, хочу отметить «Синегорские минеральные воды». В санатории недавно открылось новое направление - детокс, очень востребованное туристами.

Во врем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прозвучало предложение включить в перечень перспекти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на островах и промышленный кластер. Такой опыт уже опробован в ряде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например, в Тюмен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были созданы десятки инновационных 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 Думаю, на Сахалине в этой части есть что показать. Особую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для туристов представляют рыболовные заводы - в этом я смог убедиться лично, - рассказал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по защите пра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вета Андрей Коваленко. - Есть заводы, которые расположены недалеко от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и те туристы, которые хоть раз туда приезжали, хотят снова вернуться, чтобы посмотреть на вс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этапы - от закладки икры до выпуска мальков.

Вла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тавят перед собой амбициозную задачу - обеспечить к 2025 году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оток на уровне 6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Более 84 тысяч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охватить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ей в этом году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итогам, абсолютно здоровы четверт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ошедших медицинские обследования.

Многие из пациентов имеют факторы риска, угрожающие здоровью, или уже развившиеся заболевания.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я помогает выявить проблему на ранней стадии и своевременно начать лечение.

- Многие хрон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протекают бессимптомно, поэтому, чем раньше выявить начальные проявления недуга или риск их развития, тем успешнее будет лечение. Именно для этого и существует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я, - подчеркнула главный врач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Елена Столярова.

По словам специалиста, по числу выявленных случаев лидируют нарушения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ой системы. На втором и третьем местах - болезни эндокринной и пищеварительной систем.

Также в ходе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было выявлено и клинически подтверждено 38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Среди них лидируют рак предстательной и молочной желез.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я включает два этапа. На первом - проводится анкетирование, флюорография, измерение уровня сахара в крови, артериального давления, антропометрия. Начиная с определенного возраста, этот перечень увеличивается: добавляются ЭКГ, онкоскрининг и друг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Если есть основания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то пациент проходит второй этап.

Медицинские осмотры в рамках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проводятся один раз в три года. С 2018 года для людей старше 49 лет введ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маммография, а также анализ кала на скрытую кровь - этот метод является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м в выявлении проблем с желудочно-кишечным трактом.

Для оповещения людей о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йти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действует СМС-рассылка, которую проводя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едицинских страховых компаний. Работники медици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такж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информировании граждан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ой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Уделить внимание своему здоровью, пройти комплекс диагнос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можно и вне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11 декабр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большая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ая акция. В этот день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региона организуют медицинские площадки, где можно будет сдать анализы на холестерин и сахар, измерить внутриглазное давление, пройти флюорографию и маммографию.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удет работать 14 площадок - на площади Ленина, в торговых центрах,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ее 37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правлено на поддержк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 сфере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этом году

Субсидии из консолидированного бюджета ежегодно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владельцам частных детских садов и официальных групп присмотра.

За счет развития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ектора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ись три частных детских сада, в которых воспитывается 176 малышей, и 19 официальных групп присмотра. При участии бизнеса в регионе удалось создать 414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дошкольных мест.

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фактически ликвидирована очередь в учреждения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3 до 7 лет. Но в частные детские сады и группы присмотра,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ляют альтернатив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можно устроить ребят помладше. Условия здесь не уступают бюджетным учреждениям, проводятся развивающие занятия, и в небольших группах у педагогов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уделить внимание каждому ребенку.

Идея открыть группу присмотра и ухода «Росток» маме троих детей Светлане Кушнаревой пришл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егодня под ее началом находятся 13 ребят в возрасте от 1,5 до 3 лет. В штате - два воспитателя с педагогическим образованием и повар.

Светлана Кушнарева получила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на эти средства смогла приобрести мебель и бытовую технику. Теперь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собирае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еще одну субсидию.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она планирует потратить 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рогулочной зоны во дворе, приобретение метод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 игрушек, а также погашение арендной платы за дом, где находится «Росток».

Поддержка субъектам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в сфере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казывается ежегодно на конкурсной основе. С 2012 года из областного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бюджетов индивидуальны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была предоставлена финансовая помощь на сумму свыше 8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убсидии можно направить на оплату аренды, покупку метод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 развивающих пособий, развитие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Кроме того, с 2015 года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ежемесячно выделяет частным дошколь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средства, с помощью котор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возмещают расходы на оплату труда педагогов и другие учебные траты.

- Привлечение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к оказанию услуг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 важ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работы по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доступности этих услуг для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Мурашова. -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частные учреждения для дошкольников создан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рсакове и Холмске.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эту практику внедрят и в други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Сегодн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лугами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хвачено более 28 тысяч детей.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озвели 22 новых детских сада и одну школу-детсад - это более 3,5 тысяч дошкольных мест. До 2021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еще 1620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ст для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экономик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 рост основны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за девять месяцев текущего года.

Объем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по оценке, составил 910,3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сравнении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 рост на 4,2 процента. Промышл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выросло на 5,3 процента до 875,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Добыча нефти, включая газовый конденсат, увеличилась почти на 6 процентов до 15,7 миллиона тонн. Газа добыто больше на 8,6 процента (26,4 миллиарда кубических метров), угля - в полтора раза (9,3 миллиона тонн).

В целом по области отмечался рост производства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пара и горячей воды, лесоматериалов, конструкций и деталей инженерных сооружений сборных железобетонных, консервов рыбных, молока и молочной продукции, сыров, кисломолочных продуктов, масла сливочного, мяса, мясных субпродуктов и полуфабрикатов, колбасных изделий, хлебобулочных изделий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в том числе диетических, пива и минеральной воды.

В аграрной отрасли почти вдвое увеличилось производство мяса, яиц получено больше в 1,3 раза, молока - на 8,9 процента. Отмечен рост поголовья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свиней и птицы.

За десять месяцев с начала года на островах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170,7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Уровень регистрируемой безработицы снизился до 0,4 процента.

Впервые повышением квалификации работников пресс-служб занялись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течение трех дней в Конгресс-холле «Экспоцентра» пройдут дискуссии и обучающие мастер-классы видных медиа экспертов. III очная сессия проекта «Медишкол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репортер» пройдет 13-15 декабря 2018 года в ЦВК «Экспоцентр».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аппарата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П. Трутнева.

Очная сессия - это обучающий медиа интенсив,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получение новых знаний и практик в област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работы. Первый день интенсива будет открыт для свободного посещения.

Спикерами III очной сессии станут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связи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олин А.К., руководитель У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екто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Ф Новиков С.Г., телевизионный журналист, ведущий программы «60 минут» ТК «Россия-1» Попов Е.Г., заместитель шеф-редактора АО «Коммерсантъ» Черкасов Г.Ю.,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ИД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Новиков Р.Ю., политолог,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гентства политически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коммуникаций «АПЭК» Орлов Д.И.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Тема правов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медиа станет одним из сильных обучающих блоков обучающего интенсив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 общем списке мероприятий будет уделено обучению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м навыкам.

«Сессия в Москве станет уже третьим оч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Медиашкол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репортер». Первая сессия состоялась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начале июня, вторая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сентябре. К настоящему моменту мы смогли вовлечь в работу более 200 сотрудников пресс-служб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более 10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СМИ,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Алексей Бабков. - Для повышения авторитетности каждой сессии мы стараемся встраивать в ее повестку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ю одного из вид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Сейчас мы также готовим приятный для СМИ бонус».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1회 모스크바 한인대상’ 시상식 성황리 개최 모스크바한인회 주최로 8개 부문 시상... 송년의 밤 행사도 함께

모스크바한인회(회장 박형택)가 주최하는 ‘제1회 모스크바 한인대상 및 2018 송년의 밤’ 행사가 모스크바 교민과 고려인 그리고 현지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일 코르스튼호텔 플레이스 데 파리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서방 국가의 러시아 제재와 유가 하락으로 인해 타격을 받아 침체일로에 있는 모스크바 동포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민들의 사기도 높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모스크바한인회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이번 ‘모스크바 한인대상’ 수상 후보자에 대해 추천을 받고 1차 심사를 거친 뒤 심사선정위원회를 만들어 8개 부문에서 수상 단체나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수상자(단체) 선정에서는 한인회 활동의 외연을 넓히려는 취지로 러시아 교민뿐 아니라 재러동포와 러시아 현지인 등도 수상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한인회 측은 설명했다.

우윤근 주러시아대사는 축사를 통해 “1회 모스크바 한인대상을 수상하신 모든 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러시아에서 우리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또 우리 동포사회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린



다”고 말했다.

또한 우 대사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동포들의 노력을 부탁하고 “한국대사관도 한러 관계의 발전을 통해 우리 동포들이 러시아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동포들의 권익 및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소통하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택 모스크바한인회장은 “모스크바 내 교민사회가 형성된 지 30년이 돼 가는 시점에서 자랑스러운 교민을 찾아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고 동포사회 성장을 위한 계기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라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 2001년부터 한인회를 이끌어 온 역대 한인회의 노력과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상식 후에는 풍물배 ‘전통소리 맥’의 사물놀

이와 모스크바한국학교 학생들의 라틴댄스, 모자댄스, 태권도 시범 그리고 불쇼이 발레단 소속 배우원 발레리나가 지도하는 발레수업 수강 어린이들의 발레 공연, 상트페테르부르크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 창단된 ‘림코앙상블’과 고려인 댄스팀 ‘아리랑 루스’, 케이팝 커버 밴드, 권순건 테너와 해금 연주자 이윤희씨의 공연 등이 계속해서 이어져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행사 실무를 맡은 최승현 모스크바 한인회 사무국장은 “이미 고인이 된 모스크바 교민 1세대 자녀가 후원금을 쾌척하고 한인 식당에서 지원한 김밥으로 다과를 준비하는 등 심시일반 모연한 후원금과 물품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를 계기로 모스크바 교민의 단합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한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윤근 주러 대한민국 대사를 비롯해 이진현 정무공사, 최 발렌틴 러시아독립유공자협회 회장, 김영웅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 김 모이세이 전러시아고려인 연합회 문화 담당, 박 벨라 동방학연구소 연구원, 독립운동 영웅인 김경천 장군 외손녀인 갈리나 필란스카야, 항일영웅 59명 가운데 한 명인 포석 조명희 선생의 외손자인 김 안드레이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18 모스크바 한인대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가 브랜드 공무 부문 : 김종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CIS 지역본부장 겸 모스크바 무역관장

▲국가 브랜드 경제 부문 : 경동 나비엔

▲특별상 부문 : 황부용 라닉스 대표

▲사회공헌 부문 : 모스크바 원광한국학교

▲재러동포 부문 : 모스크바 사할린 동포 연합회 노예영 전 회장

▲독립유공자 부문 : 포석 조명희 선생

▲차세대 부문 : 권자경 레나 루코 TV 대표

▲명예한인 부문 : 할리포바 엘레나 바체슬라보브나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교수 등

(출처: 재외동포신문)

[우리말로 깨닫다]

일 없다면

일은 꼭 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의미로도 일은 쓰입니다. 무슨 일이나고 묻는다면 보통은 노동이라기보다는 사건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일이라는 말은 다양한 장면에서 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하다’겠죠. 일이 많다, 일이 적다, 일이 힘들다는 표현에도 쓰입니다. 일이 많은 사람은 쉬고 싶고, 일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은 적당하게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일은 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우리는 보통 큰일이라고 합니다. 일 중에서 큰 것은 위험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큰일이야, 큰일 났어 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작은 일은 그냥 무시하거나 지나칠 수 있지만 큰일은 근심덩어리입니다. 큰일이 났다는 말을 줄여서 ‘일 났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 중에는 아주 작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찮은 일이라고 합니다. ‘하찮다’에서 ‘하다’의 의미는 ‘크다, 많다’입니다. 따라서 하찮은 것은 크지도 많지도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일이라고 해서 막 무시하고 넘기지는 않는 듯합니다. 어릴 때부터 무수히 들었던 말이 하찮은 일이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 다. 작은 일이라고 정성껏 해야 한다는 말도 기억합니다. 모든 일은 작은 일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일에 관한 단어 중에 ‘일부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부러는 좋고 나쁜 양쪽의 느낌이 있습니다. ‘부러’라는 말은 원래 중세 국어에서도 독립적으로 쓰였습니다. 요즘에도 부러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일을 부러 한다는 말이 굳어져서 일부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을 부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는 고의로 하는 게 됩니다. 반면 일부러 찾아와서 축하해 주었다는 말에는 고마운 느낌이 생깁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일부러 와서 축하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일부러가 고의의 뜻으로 쓰일 때는 상처의 도구가 됩니다. 일부러 괴롭히고, 약 올리고, 못살게 굶니다. 못살게 구는 건 얼마나 잔인한 행위인가요? 도대체 살 수가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일부러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남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이니 말입니다. 남에게 일부러 스트레스를 주고, 모함하고, 아픔을 줍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고의가 아니었어도 못살게 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다’에 해당하는 북한 표현에 ‘일 없다’가 있습니다. 별일 즉,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로 상대를 안심시키는 표현입니다. 일 없다는 말을 들을 때면 저는 왠지 순박한 느낌이 듭니다. 별 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고, 사투리의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일 겁니다. 사투리는 정감이 장점입니다.

일에 대한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일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 즐거워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것보다 좋아서 하는 일이 행복한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있겠죠. 그런 일일수록 일 속에서 나를 찾는 게 중요할 겁니다.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일의 완성은 ‘이루다’입니다. 이루다의 어원도 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일에 지치지 않고, 일부러 좋은 일을 찾아 하고, 일부러 남에게 상처는 주지 말고, 오늘도 하고 싶은 일을 하되, 일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사할린한국교육원, 25년간 사할린과 캄차트카에서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 지킴이

(2면의 계속)

언어연수로는 국제교육원을 통해 청년들이 공주대학에서 3개월, 6개월간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 익히기 코스를 하고 있다.

사할린한국교육원과 협조해 교류를 가장 많이 하는 기관 중 하나는 동서대학교다. 동서대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동포 청년장학생을 직접 선발하고 본 대학에서 전면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했다. 이 혜택으로 36명 정도의 학생들이 동서대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2013년에 주정부와 동서대, 사할린한국교육원 간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후부터 사할린교육부가 학생들을 추천하고 교육원은 직접 선발하게 되었다. 2013-2016년도에는 해마다 5명이(총 20명) 동서대 장학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최근 2년 동안은 희망자가 적어져 1년에 2명이 동서대 입학하고 있다고 한다.

지원자들은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사할린 학생들은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관광 경영, 경제, 영화 전문 등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한국과 사할린을 비롯한 러시아 전역에서 취업하여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원이 장기간 교류를 하는 단체는 동북아청소년협의회다. 격년으로 이 단체는 한 해는 사할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한국어와 한민족문화 연수, 탐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다른 해에는 협회에서 사할린을 찾아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진 학생 위주로 여름 캠프를 열고있다.

"올해 사할린 학생들이 구미를 다녀갔으니 내년에는 사할린에서 청년캠프가 열릴 예정."이라고 김 원장이 전했다.

그리고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는 1년에 한 번 한국어 능력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 이 시험에 36명이 응시했고 올해는 67명이 자신의 한국어 수준을 확인하였다."고 교육원장이 언급했다.

또한 교육원은 한국어 채택학교, 지방한인회들이 운영하는 한글학교 등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한국어 말하기대회, 한국어와 한민족문화 관련 행사, 한국어 교사연수 등등 주관 및 후원하고 한민족문화를 보급하는 기관으로서 한러 축제를 주관하고 있다.

25년간 한국어 한민족문화 지킴이를 한 사할린한국교육원의 변명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배순신 기자)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요금은 작년과 같이 리프트 1회 이용권이 120루블리, 시즌 이용권은 3만6000루블리"라고 종합스키관광단지 안드레이 코라블료브 사장이 전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실 목적의 1회 이용권은 120루블리이고 주말과 명절에는 20루블리가 추가된다.

키125센티 이하의 아동들은 리프트에 무료 승차이고 17세 이하의 학교 학생들은 아무 날이나 1회 이용권이 75루블리다. 이때 학교에서 제공하는 증명서와 여권을 지참해 제시해야 한다.

1인당 75루블리의 동일한 요금 혜택은 다자녀가족(3-5명의 자녀)에게도 주어진다. 자녀 5명 이상일 경우 온 가족이 무료로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 사전에 영업부로 가서 등록해야 한다.

1급 장애인과 동반자 1명도 리프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17세 이하의 장애아들에게도 이러한 요금표를 적용한다.

사할린 중년의 주민들도(여성은 55세부터, 남성은 60세부터) 무료로 자유롭게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는 연령이 5년 더 높을 경우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무제한 이용권은 작년 가격과 같다: <낮(하루) 이용권>은 1500루블리, 2일 이용권은 2800루블리, 3일 이용권은 3900루블리, 5일 이용권은 6000루블리다. 시즌 이용권은 3만6000루블리이다.

Тарифы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останутся прошлогодними

Ценовая полити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новом сезоне останется прежней.

- Цены остаются на уров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дин подъем будет стоить 120 рублей, а сезонный абонемент - 36 тысяч, - сообщил директор комплекса Андрей Кораблев.

Так, для тех, кто просто хочет подышать свежим воздухом, один подъем на гору составит 120 рублей. В выходные и праздничные придется заплатить на 20 рублей больше.

Дети ростом до 125 сантиметров на канатку пропускаются бесплатно. Школьники до 17 лет включительно в любой день платят за подъем всего 75 рублей. Естественно, при этом нужно иметь с собой паспорт и справку из школы.

Аналогичная стоимость за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 75 рублей - предусмотрена для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где 3-5 детей. А вот если детей больше пяти, то подъем для всех членов семьи будет бесплатным, но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заранее обратиться в отдел продаж лыжного комплекса.

Бесплатно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подъемника и инвалиды I группы совместно с одним сопровождающим. Под этот тариф попадают и дети-инвалиды до 17 лет включительно.

Свободный проход сделан и для пожилых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для женщин с 50 лет, мужчин - с 55 лет. А для жителей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возрастная рамка поднята на пять лет.

Безлимиты в этом году также останутся с прошлогодними ценами: «Дневной» - 1,5 тысячи рублей, на 2 дня - 2,8 тысячи, на 3 - 3,9 тысячи, на 5 дней - 6 тысяч. «Сезонный» абонемент стоит 36 тысяч рублей.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 о р р . с ч е т :**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72-94.

(본사 편집부)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реклама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еда.сах.ком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а.г.(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